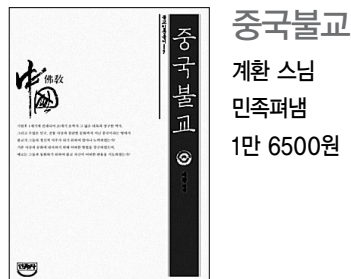


중국불교, 서한 말부터 중국 역사 관통



중국불교 개관
김건용 지음 | 민족퍼냄
1만 6500원



불교사가 중국불교의 연구에 큰 중요성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방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물론 20세기 이후 중국에서는 불교가 쇠퇴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가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과 중국인들의 삶에 지속적인 자취를 남겼다는 사실까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역사는 바로 현재 의식에서 포착하는 과거이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사 전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불교의 역사를 쉽게 풀어 쓴 <중국불교>(불교입문총서 시리즈 7권)는 단순히 중국 불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불교사를 다른 학술서지만 서술이 쉽고 명쾌해 일반 독자들도 편안히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주듯, 중국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서한(西漢) 말부터 중화인

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중국의 전(全)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이 책은 외래 종교인 불교가 중국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존의 중국 사상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며 중국인들과 동화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많은 예화를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이 책은 중국불교사의 굵직한 사건 및 인물들, 사상의 계보를 시종일관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상이나 유교의 역사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상이나 역사 연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저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의 시점을 따라 여러 각도에서 중국불교사를 관찰함으로써 중국불교를 보다 면밀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국가종교로서 장려되거나 반대로 탄압받는 등 정치의 한가운

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불교에서는 중국 역사 속 정치의 작은 풍경들을 엿볼 수 있다

그대서 국왕들의 관심은 불교 그 자체보다는 고승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승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들이 지닌 종교적 영험 및 신통력에 의지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고승들은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했다. 석호와 불도정의 관계, 부견과 도안, 요흥과 구마라집, 저거몽손과 담무참의 관계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중화외사'를 토대로 한역대장경을 탄생시키고, 중국 고전의 개념을 매개로 불교를 이해하는 격의불교(格義佛敎)를 고

한국 불교 모태 된 중국불교 연구 중국 시대별 정치와 사회상 엿바라기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안해 내는 등 중국인들이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해 나갔던 모습이 서술돼 있어, 중국의 독특한 사상 및 전통과도 마주하게 된다.

한편 중국불교가 기존 중국 사상인 도교 및 유교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모미이다. 불교와 부처에 대해 단답을 펼치는 '모자이 혹은'의 설명 부분에서는 불교 전래 당시 인간의 수용 상황을 짐작해 해 흥미롭다.

또한 불타를 의역하면 2(覺), 즉 깨달음

을 의미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는 불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변화자재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때는 존재하고 어떤 때는 소멸하며, 크기도 작기도 둥글기도 사각이기도 한다. 또한 늑기도 짐기도, 숨겨나 나타나기도 하며,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칼로 베어도 상처가 없다. 더러움 속에 있어도 때가 묻지 않는다. 이 뿐 아니라, 가려고 생각하면 곧 날아가고 앉아서도 광명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佛)를 불(佛)이라고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한국불교는 그 기반을 중국불교에 둔다. 천태나 화엄 같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교리가 중국에서 체계화됐다. 선종과 정토종도 중국서 발달하고 전개된 종파들이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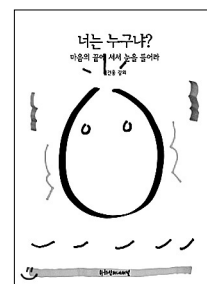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저자 김건용은? 운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와 일본하나조노(花園)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교토 불교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불교학과 교수와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옮기거나 집필한 책으로는 <홍명정> <중국불교사> <중국화엄사상사연구> <독독독 불교를 두드려보자>(공저) <상상으로 만나는 불교> <일본불교사> 등 다수가 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자아 찾으면 삶의 큰 변화 연결”

너는 누구냐

김건용 지음 | 슈하인터내셔널 퍼냄 | 1만2천원



이 책은 나에게)의 정체를 탐구하는 7일간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1997년 초판 이후 2004년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 책은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종교적 색채와 관념적인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일상 언어로 깨달음을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책은 허상인 에고를 넘어 대상화가 되지 않는 최후의 주시자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후의 주시자가 되는 것은 본성계합이며, 넘어감이고 깨달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이며, 평화이고 궁극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해답이다.

이 책은 허상인 에고를 넘어 대상화가 되지 않는 최후의 주시자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후의 주시자가 되는 것은 본성계합이며, 넘어감이고 깨달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이며, 평화이고 궁극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해답이다.

깨달음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깨달음을 생활 속의 힐링 개념으로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역사 이래 종교와 철학, 정신세계를 아울러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깨달음이 사회와 격리된 산속에서 극단한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은 사교의 극한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또한 깨달음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루 삶의 과정 속에 짧은 시간이라도, 단 3초, 단 7초라도 보는 것을 뚜렷이 보며, 듣는 것을 정확히 듣는 시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과 우리 자신의 삶, 즉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수많은 개념을 갖고 있다. 산, 물, 해, 달, 별, 낮, 밤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것도 있고 선, 악, 정, 사랑, 진리 등의 추상적인 것도 있다. 산과 물 같은 구체적인 것, 아니면 사랑, 진리와 같은 추상적인 것, 또한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미지나 관념적 언어 등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개념화시킨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다.

나라는 것은 개념일 뿐

우리는 자연과 우리 자신의 삶, 즉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수많은 개념을 갖고 있다. 산, 물, 해, 달, 별, 낮, 밤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것도 있고 선, 악, 정, 사랑, 진리 등의 추상적인 것도 있다. 산과 물 같은 구체적인 것, 아니면 사랑, 진리와 같은 추상적인 것, 또한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미지나 관념적 언어 등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개념화시킨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다.

참다운 마지막 나는 최후의 주시자

'나'의 특성 중 하나는 언제나 분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이것을 또다시 알고 있는 자기가 있고, 그리고 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또 있다.

나라는 것을 인식이나 느낌으로 추적해도 마지막에는 그 개념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최후의 인식자가 있다. 참다운, 마지막 자기는 주체의 원점이고 최후의 인식자이다. 오직 인식 작용, 즉 아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안다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일 뿐이다. 결국 나라는 것은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이다. 진실한 나는 나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일 뿐이다. 최후의 인식이 사라진 오직 그 자체, 그것이 깨달음이다.

수정은 꽃 비추지만 색깔에 물들지 않아

수정에 비추어지는 빨간색 꽃이 있다. 수정은 빨간색을 비추지만 그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성계합이 된 사람은 빨간 꽃을 보면서 보는 현상에 물들 수 없다.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기쁨, 고통, 슬픔도 마찬가지이다. 수정 자체는 비추어진 현상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수정에 비추어진 현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에고는, 수정의 입장에서 보면 허상이고,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3초, 7초에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

수정에 비추어진 잡념, 고통, 집착 등은 수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성계합, 즉 수정은 잡념을 없앨 필요도 없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도 않게 되며,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비추어진 고통은 수정과 무관하다. 또한 고통의 과정 속에 짧은 시간이라도, 단 3초, 단 7초라도 보는 것을 뚜렷이 보며, 듣는 것을 정확히 듣는 시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와의 마지막 유희 즐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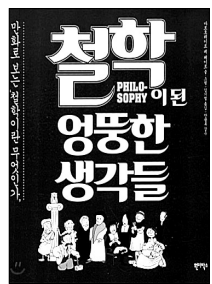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아라는 불완전한 허상, 개념 속에서 분리감을 갖고 살아왔다. 꿈과 같은, 허깨비와 같은, 있을 수가 없는, 전혀 사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이제 단 한 순간만이라도 최후의 인식 그 자체가 되면, 당신의 존재 혹은 삶 자체의 방향(시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우리들이 허깨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에고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에고가 있었기에 7일간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에고와의 마지막 유희를 즐기고 훌훌분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본성계합 즉 깨달음의 여행을 떠나자고 독려한다.

김주일 기자

삶을 멋대로 가지 않게 하는 길잡이 '철학'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

마르헤리트 데 헤르 글 | 김기철 그림
원더박스 퍼냄 | 1만3천원



이 책은 장대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한 새로운 형식의 철학 입문서이다. 저자는 철학 책이 대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어서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인상을 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면, 모든 철학자들의 사상과 개념을 설명하는 대신 저자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삶에서 철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철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매우 개인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철학은 곱팡내 나는 언어로 뒤덮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동 조종기 위에서 멋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길라잡이임을 말한다. 언뜻 보기에 이 책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만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철학사만 늘어놓는 여느 책과 달리 저자 자신이 어떻게 철학을 만났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마르헤리트 데 헤

엉뚱하고 유쾌한 '사유 철학 입문서'

생각이 삶의 철학되는 '진짜 철학'

철학은 삶의 지혜를 얻는 실용 학문

이르는 신학을 공부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듯 영화 아카데미에 진학했고, 그 길의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몸소 깨닫는다. 다시 유전자에 굴복하듯 다른 가족들처럼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의 뜻이었던지 결국에는 만화가로 살 것

을 '선택'한다. 이밖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슬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학교 졸업 후에는 엘리트 코스보다는 '현장' 경험을, 인간관계에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사연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함으로써 "나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공부했음을 고백한다. 저자는 자신의 이런 선택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선택 이후에 과연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한다. 이처럼 이 책에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영리한 방식으로 생각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삶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저자 자신이 공부한 철학 개념들이 어떻게 삶에 녹아들었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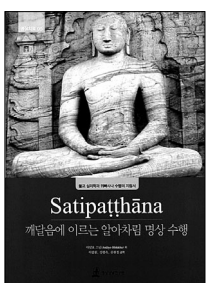
이 책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저자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철학을 인터뷰한 후반부이다. 저자는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반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친척과 동생 등 보통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탐구한다.

김주일 기자

'사띠' 수행의 핵심 정리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아날요 스님 지음 | 이필원, 강향숙, 류현정 공역
명상상담연구원 퍼냄 | 2만원



이 책의 저자인 아날요 스님은 독일인으로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에서 2000년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책이 딱딱한 학술적 학위논문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한 해설을 실어 여러나라 언어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명상 수행에 대한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염처경>에 대한 상세한 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불교 수행서 염처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 그리고 실제적 적용에 이르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포켓]
- ▶ 수행요전 (법어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 (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 (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